

대우일렉 가전 제품 쿠바서 통했다

광주서 생산 10만대 수출 계약 체결 ... 올 1200만 달러 매출 전망



대우일렉은 지난 2~3일 쿠바 수도 하바나의 벨리아 코히바 호텔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열어 가전제품 10만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일렉 제공>

광주에서 생산되는 대우일렉 가전 제품이 쿠바시장을 강타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이성)는 지난 2~3일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열어 가전제품 10만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지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대우일렉은 냉장고 1만5000대, 세탁기 6만대, 전자레인지 3만5000대 등 총 10만대, 1050만 달러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우일렉은 “쿠바 정부의 시장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판로 확보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 신제품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우일렉은 올들어 6월까지 냉장고를 경우 지난해보다 80배 이상, 전자레인지는 100%, 세탁기는 35% 매출이 성장했다. 특히 올해 쿠바시장에서만 12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 지난해보다 185%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구 대우일렉 쿠바담당 법인장은 “쿠바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이닉스 매각 난항

현대중공업 인수전 불참 공식 선언

하이닉스의 유력 인수 후보자로 꼽혔던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5일 공시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 인수관련 인수

향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 시너지 효과도 부족하고, 경기 변동 주기를 볼 때 중공업과 반도체 산업간에 상호 보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한 달 전 하이닉스 인수 참여설에 대한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확정된 바 없다”며 긍정도 부

정도 하지 않으면서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써 조선업에 돌린 그룹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수 이유로 꼽혔다. 특히, 현대오일뱅크(정유), 현대중합상사(에너지개발) 등 옛 현대 계열사를 사들여 조선업의 비중을 낮춰나가는 현대중공업으로서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흠뻑 뿜어낸 현대 계열사를 한지붕 아래 모으고, 사업 다각화도 일순 수준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LG그룹과 효성그룹 등 유력 인수 후보가 포기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현대중공업마저 불참을 공식화함으로써 하이닉스 매각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연협뉴스

“최고의 조선 전문기업 만들겠다”

대한조선 사장 이병모씨 선임

대한조선 대표이사·사장에 이병모(54·사진) 대우조선해양 전무(경영지원부문장)가 선임됐다. 취임식은 7일 오전 11시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사장은 경기도,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한 ‘조선통’이다. 특수선 합성 설계를 시작으로 생산관리·경영혁신·경

영지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정을 두루 거친 조선전문가로 대한조선의 위기 극복에 이끔 책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갖춘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을 접목시켜 대한조선의 조기 경영 정상화는 물론 최고 수준의 조선 전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추가



수주 조기 달성, 효율적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헌, 안전한 사업장 조성 등 경영포부도 밝혔다.

한편, 워크아웃 중인 대한조선은 이달부터 향후 3년간 대우조선해양이 위탁 경영한다. 이에 따라 대한조선은 주력 선종인 벌크선은 물론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 총분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매출 7339억원, 영업이익 486억원을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법 교육

광주국세청, 세무대리인 직원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무대리인 종사직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키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올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 발행을

하고 있으며 개인복식부기 의무자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개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참여를 올 세무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참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종사직원에게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지난 4월부터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에는 세미라 교육센터에서 제4차 교육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광근 광주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장은 “교육 실시 후 일선 세무서의 제도 관련 상담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8월 31일 실시되는 제5차 교육에 더욱 많은 세무대리인 종사자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산업 지분매각 완료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6일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금호타이어의 남은 지분 0.39%도 조만간 전량 매각할 예정이다.

박찬구 회장은 2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석화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분리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협뉴스

코스피지수	▲ 2171.19 (+9.44)
코스닥지수	▲ 492.94 (+0.57)
금리 (국고채 3년)	▲ 3.77% (+0.01)
원·달러 환율	▼ 1063.40원 (-2.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 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쏘울’과 야구의 만남



기아차, 13일 무등야구장서 ‘쏘울 GDI 로드쇼’

기아자동차는 오는 13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쏘울 GDI 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로드쇼에서는 각 구단 및 올스타전 로고가 랩핑된 쏘울 GDI 9대가 운행된다.

또 로드쇼 당일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쏘울이 그려진 응모권을 나눠주고, 올스타전 MVP를 맞춘 관객을 추첨해 경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와 KBO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baseb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 GDI’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인 감마 1.6 GDI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140ps, 최대토크 17.0kg·m의 동력성을 낸다. 또 15.7km/ℓ의 연비를 달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

농협 전남본부, 63개 하나로마트서 불고기 등 반값 판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구제역 사태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본격 나선다.

농협 전남본부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광주시 동구 화동 광주축산농협

등 광주·전남지역 63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불고기 페스티벌’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불고기 및 국거리 매장당 1500kg을 지난해 말 가격의 절반 수준인 kg당 1만6900원에 판매한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매주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매장 자체적으로 1+1과 3+1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 불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 광주옥외광고대상전

8~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년 ‘제6회 광주옥외광고대상전’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광주다움&사이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광주옥외광고대상전’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옥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전시회로,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생들의 동심에서 바라본 예쁜 간판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과 광주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수상작 88점이 전시된다. 또 광고업 종사자의 아름다운 창작 간판 전시물이 일반부스 33개로 나뉘어 전시하게 되며,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무료 네일아트, 바디페인팅, 예쁜 글씨 써주기, 공예체험관, 골판지공예,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위한 구인·구직 한마당 등 이벤트관도 운영된다.

이밖에 간판문화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옥외광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 옥외광고물의 문제점과 향후 비전을 제시해 광주만의 정체성으로 패색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 건설사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 보증해야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수주 업체는 종전 하도급 계약은 물론 자재납품·장비대여 계약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나친 저가 낙찰을 막고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70% 이상 적용되는 공사 등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등 시공자적(영양법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합한 회사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연협뉴스